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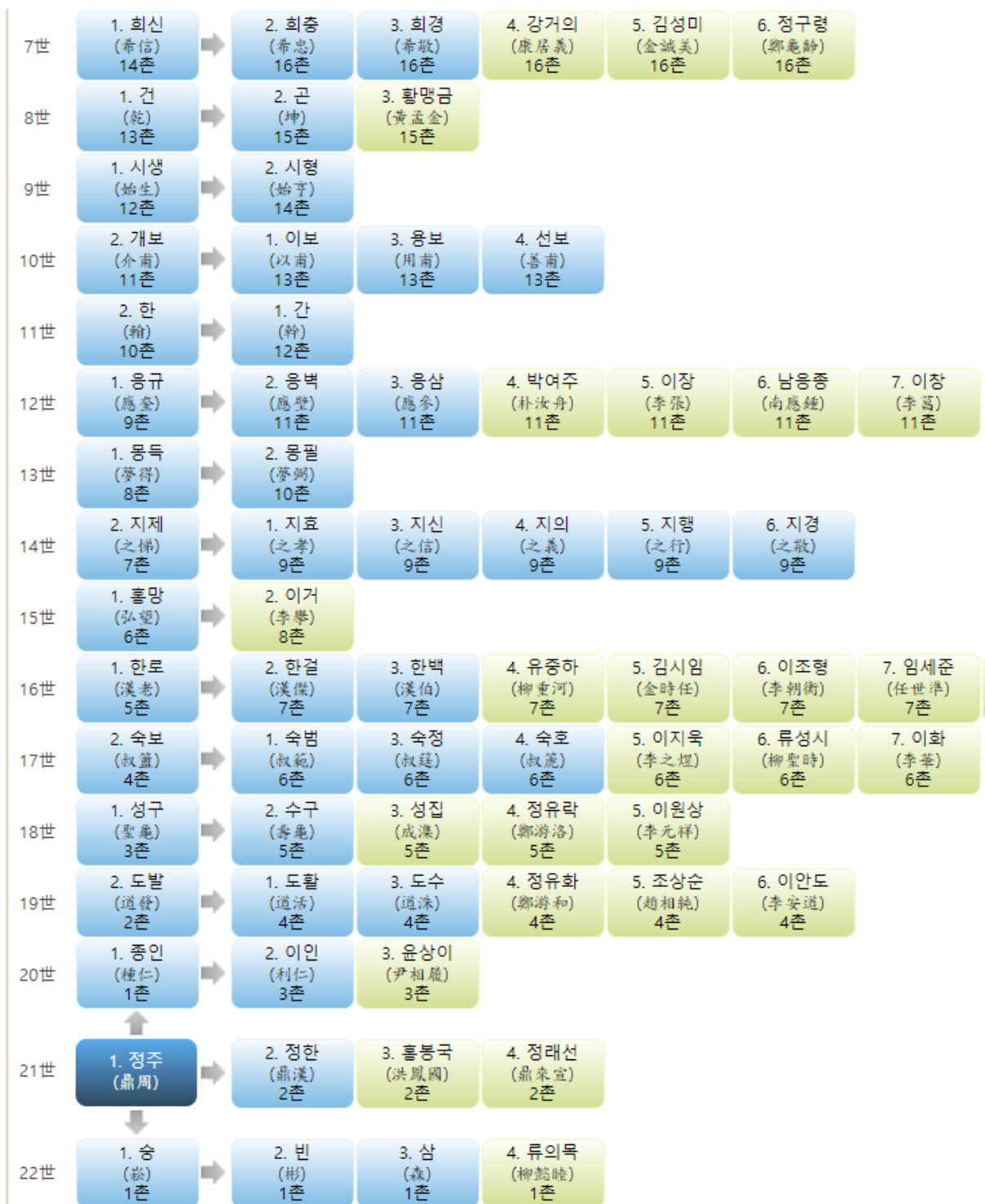
# 도와집(陶窩集) 신정주(申鼎周)

## 가계도

### 21世 정주(鼎周)

父 : 종인(種仁) 祖父 : 도발(道發)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 신정주(申鼎周)

항목 ID	GC05200921
한자	申鼎周
이칭/별칭	경백(景伯), 도와(陶窩)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a href="#">1764년 - 신정주 출생</a>
활동 시기/일시	1783년 - 신정주 향시에 급제
몰년 시기/일시	<a href="#">1827년 - 신정주 사망</a>
출생지	신정주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거주 이주지	신정주 이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수학 강학지	옥련사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묘소 단소	신정주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백(景伯), 호는 도와(陶窩). 신성구(申聖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도발(申道潑)이고, 아버지는 신종인(申種仁)이며, 어머니는 선산 김씨(善山 金氏) 김기대의 딸이고, 부인은 김해 김씨(金海 金氏) 김원묵(金元默)의 딸이다.

## [활동 사항]

신정주(申鼎周)[1764~1827]는 3~4세에 글을 해독하기 시작해 7~8세에 『통감(通鑑)』, 10세에 『소학(小學)』과 사서(四書), 12세에 삼경(三經)을 읽었다. 1779년(정조 3) 옥련사(玉蓮寺)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족부(族父) 신체인(申體仁)에게 수학하고,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에 서도 공부하였다.

1783년 향시(鄉試)에 급제하고, 이어 1809년(순조 9)에는 영남의 명망 있는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홍여하(洪汝河)가 편찬한 『휘찬려사(彙纂麗史)』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구미[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로 거처를 옮겼다. 이어 1812년 『구장지(龜庄誌)』와 「구미촌 향약(龜尾村 鄉約)」을 지어 주민 교화(教化)에 힘썼다.

만년까지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향약 실시 같은 향촌 교화에 주력하여 '학행(學行)'으로 고을에서 이름을 높였다.

## [학문과 저술]

문장에 능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만록(漫錄)」, 「호서 기행록(湖西 紀行錄)」 등이 6권 3책의 문집 『도와집(陶窩集)』에 전한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경육잠(自警六箴)」과 「암실명(暗室銘)」을 지어 자신의 경계로 삼았으며 『구장지(龜莊誌)』는 지금까지 아주 신씨가 세거하고 있는 구장(龜莊)[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의 지리지이다.

##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錦山)에 있다.

## [참고문헌]

『도와집(道窩集)』

『조선 환여 승람(朝鮮 寰輿 勝覽)』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 도와선생문집(陶窩先生文集).1 - 3

### 서지사항

시대	조선
저작자	신정주(申鼎周)
창작/발표시기	1863 년(철종 14)
성격	시문집
유형	문헌
권수/책수	6 권 3 책
간행/발행	신조헌(申祖憲), 신휴인((申休仁))
분야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장서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해제

6 권 3 책. 목판본. 1863 년(철종 14) 그의 제자 신조헌(申祖憲)과 족부(族父) 휴인(休仁)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홍우정(洪宇正)·이정우(李廷佑)의 제발(題跋)이 있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 1 에 시, 권 2·3 에 서·제문, 권 4 에 애사·자사(字辭)·유사·행록, 권 5 에 잠(箴)·명(銘)·서(序)·기·지발(識跋)·상량문·묘표, 권 6 은 잡저와 부록으로 행장·만사·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제영(題詠)·영물(詠物)·수연운(晬宴韻)·만사 등이고, 서(書)는 사사로운 문안편지보다는 학문에 관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경전(經傳)의 훈의(訓義)에 대해 많은 논답(論答)이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도후서(庸學圖後序)」는 대개 이기(理氣)에 관한 논변으로, 그 이론이 명쾌해 경학(經學)을 연구하는 데 훌륭한 자료이다.

잠 가운데 「자경육잠(自警六箴)」과 명 중의 「암실명(暗室銘)」 등은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가지는 데 대한 잠계(箴戒)로서 후인들의 규범이 되는 명언들이며, 저자의 조행(操行)과 수양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유해정록(遊海亭錄)」·「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 등의 기행록은 관람한 주위의 경관을 운치 있게 묘사함으로써 문장이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초년에 사장(詞章)에 힘쓰다가 늦게 성리학자인 정종로의 문하에서 이학(理學)을 공부한 저자의 문장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권호명 : 天

14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一 = 17

卷之二 = 75

권호명 : 地

15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三 = 11

卷之四 = 105

권호명 : 人

15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五 = 7

卷之六 = 71